

판문점이 길이 전하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념원

해마다 11월이면 사람들은 뜨거운 추억의 마음을 판문점에 새워준다.
어느덧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판문점에 새긴 신록의 발자취와 더불어 력사의 그날은 겨레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금문자로 새겨져있고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념원은 전체 조선민족을 통일성업실현의 한길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빨찌산의 아들, 최전방에 나가시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에는 유달리 흰 안개가 서리렸다.
세상사람들속에 《흰 안개 전설》로 전하여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바로 이날과 더불어 새겨진것이다. 당시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질지 모를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어 있었다.
평화나, 전쟁이나를 논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조선반도 남북과 그 주변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공화국을 기습타격하는 실전으로 넘어갈수 있는 대규모전쟁연습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었다.
미국을 피소로 한 제국주의원한세력은 《북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떠들며 압살의 칼을 빼들고 덤벼들었고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세력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홍수통일》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였다.
극한점에 다달은 령전이 열전으로 번져지는것은 거의나 피할수 없는 시간문제였다.
바로 이러한 때 민족자주, 평화통일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리의 협에 하고 날카로운 랑국이 서로 직접 대치되고있는 판문점을 찾으신것이다.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판문점초병들에게 담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주체 85(1996)년 11월]

것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인종의 머리에 드리웠던 전 통일의 밝은 해살을 뿌려주실도하였다. 담대한 배짱과 담력으로 민 쟁의 검은구름을 밀어내시고

분리의 상징을 통일의 상징으로

기나긴 세월 분리의 상징으로 되어온 판문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통일의 상징으로 겨레의 마음속에 우뚝 솟아오르게 하여주시었다.
판문점시찰의 그날 장군님께서 청신한 대기속에서 숭엄한 자세를 드러내고있는 아버지수령님의 친필비말에 오래도록 서계시었다.
깊은 감회속에 친필비를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 친필비준하신 력사적문건이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이었다고,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전체 조선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분명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문건에 친필을 남기시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하시었다.
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기둥, 3대헌장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이날 장군님께서 판문각 3층로대에도 오르시었다.
불과 수십m앞의 남쪽땅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여기서 서울까지 불과 40km밖에 안된다고, 평양까지 가는 거리의 4분의 1도 못된다시며 조국통일이 안된다보니 지금은 여기서 부득이 멈춰서게 된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그의 말씀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끊어진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다시 잇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나아가는

해마다 11월이 오면 우리 민족은 지나온 력사와 더불어 민족의 힘, 국력에 대하여 되새겨보군 한다.

11월이 말해주는 력사의 진리

1905년 11월 17일. 이날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 치욕의 한페이지 기록되어있다.
당시 일제는 수많은 침략무력과 대포를 끌고와 황궁을 겹겹이 포위하고 위협하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나라를 내놓을것을 강박 하였으며 망국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

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힘없는 민족이 당해야 했던 치욕의 운명이었다.
당시 모악한 일제는 군함과 대포를 앞세우고 달려들었지만 우리에게는 화승총마저 변변한것이 없었다. 그러나 침략자들에게 맞서 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나라

를 빼앗겼다. 그때로부터 40여년간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노예살이를 하면서 당한 불행과 재난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한세기가 지난 오늘날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최강의 힘을 갖추게 되었으니 지금도 사람들은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무진한 잠재력을 과시하는 성과물을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새로 개발한 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반항공미사일시험발사 등 무장장비개발소식들과 조선로동당 창건 76돐을 맞으며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의 전람회장에 집결되었던 최근 5년간 개발생산된 각종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은 강력한 조선의 국방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친명신사와 같이 공화국무력의 상대는 그 어떤 특정한 국가가 아니며 전쟁 그자체이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공화국이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고있는 위력한 자위의 억제력이다.
이 위대한 힘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핵위협을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것이다.
11월은 말해준다. 탁월한 수령을 모실 때 강대한 힘을 지닐수 있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날수 있다는것을.

본사기자 김영진

수령님의 통일외지와 신념이 어린 친필비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대표부에 도착하시어 아버지수령님의 친필비부터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오래도록 곁을 멈추시고 숙연히 서계시었다.
친필비에는 수령님께서 생애를 마치시기 하루 전날에 친히 조국통일판계문건에 마지막으로 쓰신 존함과 날자가 수령님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한 문건에 마지막친필을 남기고 순직하시었다고,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력사적인 친필에는 수령님의 강요한 통일외지와 신념이 함축되어있고 조국통일에 대한 수령님의 확신이 담겨져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

었다.
비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진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것이였다.

진짜 멋쟁이집

장군님께서 《통일각》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통일을 념원하는 뜻에서 좋고 통일된 다음에는 통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좋다고 하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통일각은 진짜 멋쟁이집이라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참으로 통일각은 민족의 통일념원과 의지를 체현하고있는 뜻깊은 집으로, 누가 진정한 멋쟁이 집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고 누가 대결과 분열을 추구하는가 하는것을 직접 목격하고 만천하에 예치는 력사의 증거자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성황리에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1 진행

로주소식
얼마전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1이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평화적우주개발정책을 높이 받들고 우주개발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최신과학기술성공과를 널리 보급일반화하여 나라의 우주개발사업을 적극 추동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토론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과학교육기관들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인공지구위성분과, 우주제 및 요소분과, 우주관측 및 기초과학분과, 응용기술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 단위들이 제출한 190여건의 논문들을 심사평가하였다.
위성과 그 부분품들의 제작 및 시험기술, 위성항법과 궤도 및 자세조종기술, 합성개구레이더 및 위성용활영기의 개발기술과 위성통신, 지상관측기술, 각종 우주용재료개발 기술 등 인공지구위성의 개발과 조종, 관측 및 통신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긴절한 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한 논문들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1은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적극화되는데 부응하여 공화국의 우주개발계획을 확신성있게 추진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개원협화원 구성담공장 준공



평안북도에서



개원협화원 국민통천제지공장 준공



민족하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신 불멸의 영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겨레의 통일속원을 한몸에 안으시고 민족자주위업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 강성변영의 새 민족사를 개척하시기 위하여 결심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성스러운 통일령에는 불가침력의 전역력력으로 조선반도에 드리운 재난의 검은구름을 밀어내고 뜨거운 민족애와 고결한 인덕으로 북한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뜻을 나날들도 아로새겨져있다.

환, 대변력을 가져오는 문제 등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당한 지침들을 밝혀주시었다.

특히 조국해방 70돐을 계기로 내외에서 조선반도의 정체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갔지만 군사분계선일대에서 8월 10일부터 《대북실리전》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하였다.

8월 17일부터는 미국과 함께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인 《을지프리덤 가디언》을 벌여놓다 못해 8월 20일에는 신성한 공화국령토를 향한 특대형도발까지 감행하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을 겨냥한 로폭적인 침략전쟁행위였다.

역적패당의 전쟁망동을 단숨에 제압한 최고사령관명령

2015년은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 뜻깊은 해의 첫아침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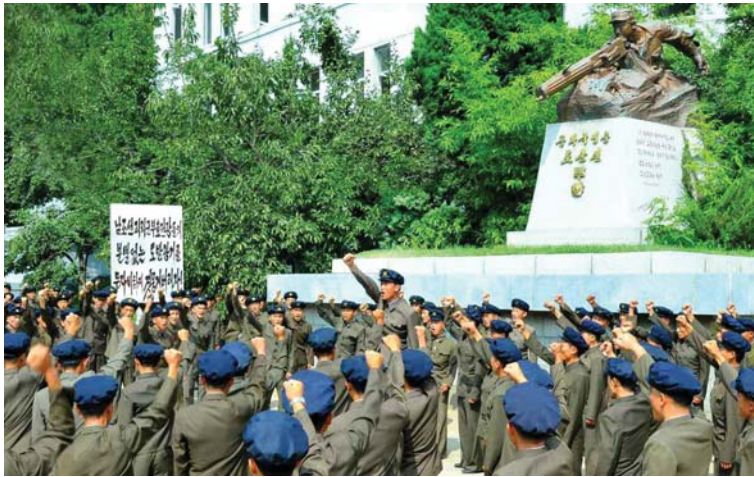
는 투쟁구호를 제시하여주시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문제, 체제대결이 아니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실현하는 문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으로 북한관계의 대전

환, 대변력을 가져오는 문제 등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당한 지침들을 밝혀주시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을 겨냥한 로폭적인 침략전쟁행위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을 겨냥한 로폭적인 침략전쟁행위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을 겨냥한 로폭적인 침략전쟁행위였다.



준전시상태를 선포할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받들고 온 나라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2015년 8월)

략월한 사상리론의 저장

김정일애국주의를 애국의 기치로 내세우시어

공화국인민들을 참다운 애국의 길로 이끄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술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인민들에게 김정일애국주의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보물을 안겨주시고 전체 인민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나간다고

이 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모든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회주의와 하나로 결합시키고있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강화발전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애국정신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되어있는 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헌신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회주의와 하나로 결합시키고있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강화발전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애국정신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되어있는 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헌신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회주의와 하나로 결합시키고있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강화발전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애국정신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되어있는 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헌신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회주의와 하나로 결합시키고있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강화발전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애국정신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되어있는 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헌신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회주의와 하나로 결합시키고있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강화발전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애국정신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되어있는 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헌신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회주의와 하나로 결합시키고있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강화발전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애국정신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되어있는 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헌신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회주의와 하나로 결합시키고있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강화발전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애국정신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되어있는 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헌신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회주의와 하나로 결합시키고있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강화발전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애국정신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되어있는 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헌신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민족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하진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여는 10년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불세출의 위인 (3)

주체105(2016)년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또 한차례의 역사적인 리표표가 마련된 뜻깊은 해였다. 뜨거운 인민사랑과 특출한 령도실력으로 온 겨레와

세인의 각광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해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히는 획기적인 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신 것이다.

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 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 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어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당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비롯하여 온 겨레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조국통일방침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조선민족의 피출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한 방안이다.

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불멸의 대강... 이것은 통일위업실현의

불변의 진로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더치는 온 겨레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의 분출이었다.

수호할수 있고 나라의 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민족자주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민족의 영구분열과 망국의 길이다. 이것은 민족분열의 70년력사가 보여 주는 뼈저린 교훈이기도 하다.

하게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루는 길밖에 없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

주체적통일로선을 불변의 침로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공화국에서 민족자주위업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있던 역사적시기에 소집된 뜻깊은 대회였다.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천명하시었다.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때 대한 조선로동당의 통일로선은 투철한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야말로 통일위업실현의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뜨거운 민족애가 그대로 백락되고있었다.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방략제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 이것

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이라고 하시었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원칙에 관철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 하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도들도 밝혀주시었다.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는 조선로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야말로 통일위업실현의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뜨거운 민족애가 그대로 백락되고있었다.

다 아는것처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승리하면 올바른 로선에 기초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운동의 본질과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는 정확한 로선수립이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올바른 로선이 있어야 조국통일의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민족주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야말로 통일위업실현의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뜨거운 민족애가 그대로 백락되고있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의 전제를 마련해나가는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획기적인 조국통일로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오으로써 우리 겨레는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박철남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공화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정세의 요구와 날로 높아가는 겨레의 통일열망에 맞게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안과 제안들을 련이어 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79(1990)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1940년대에 시작된 민족분열이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있는것은 민족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 세계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력사의 비극이라고 하시면서 북남사이의 장벽을 마스는 문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내놓으시었다.

이 방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놓은 콩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리는것이였다.

민족의 분열과 대결의 상징인 콩크리트장벽을 그대로 두고 통일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사실상 반발공부에 지나지 않으며 원한이 이 장벽을 허물어버리는것은 북남사이의 긴장과 대결을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수 있게 하며 조국통일의 결정적극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의 제안에 「장벽이 없다.」고 하면서 기존대회의 재개와 《3통협정》의 체결 등을 고집해나섰다.

이에 대처하여 공화국정부는 1990년 2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대표들의 제2차련합회의를 열고 남조선당국이 보내온 회답편지를 분석검토하고 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과 새로운 적극적인 대책을 담은 편지를 남측에 또다시 보내었다. 1990년 2월 1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은 남조선 《통일원》(당시) 장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어 남조선당국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내에 콩크리트장벽이 없다고 고집하는 조건에서 장벽의 유무를 현지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로동

자, 농민, 청년학생참관단을 보내줄것을 제의하면서 장벽을 수룩한 필립자로 넘겨주겠다고 하였으나 남측은 《정치선전》을 운운하며 끝내 받아가라는것을 거부하였다.

3월 22일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대표회의에서는 정부, 정당대표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새로운 적극적인 제안을 담은 편지를 공화국정부, 정당대표회의의 명의로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다시금 보내었다.

파편들이 조분, 대결장면에서 장벽이 무너져

6. 15 공동선언기념조형물 제막식 진행

남조선강원도 고성군에 6.15공동선언기념조형물이 세워졌다고 한다. 《하나다》라는 주제의 조형물은 화강석으로 된 받침대에 두손을 모은 형상으로 제작되었는데 《남과 북이 하나되어 이루어나가는

꿈과 희망》을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 6.15공동선언기념조형물은 고성군이 최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남조선강원도청과 함께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고 그 역사적가치를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

으로서 설치하였다고 한다. 제막식이 지난 18일 진행되었다. 제막식은 기념영상시청, 남북공동선언문朗독, 조형물제막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홍범식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민족분열의 참혹한 비극은 장장 70여년이나 이어져오고있다. 이 기나긴 나날 우리 겨레는 언제 한번 통일에 대해 잊은적이 없었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려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민족의 절절한 소원인 조국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밤은 길어도 새날이 오듯이 조국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야만갓기다. 통일은 민족사의 필연이고 대세이다.

다 아는것처럼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한강로에서 반만년의 오랜 력사적기간 한포출을 순결하게 이어 온 단일민족이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조선민족처럼 대대로 한강로에서 하나의 피출을 이어오며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그런 슬기롭고 용맹한 민족은 없다. 이러한 민족이 계속 들

게 벌어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로 되고있다. 민족분열의 지난 70여년은 말그대로 우리 겨레에게 어느 한시도 마음편히 살수 없게 한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협으로 점철된 나날이였다.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가 막대한 군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무궁번영의 담보

적으로도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협이 가장 높은 최대의 열점지대로 되고있다.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하여 북과 남사이의 방대한 무력 충돌이 항시적으로 대치되어있다. 또한 침략적인 외세의 침단무장장비들이 남조선에 수시로 반입되고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이 변질나

는 자명한 리치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이 땅에 몰아치는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내고 온 겨레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강토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조선반도는 세계

통일의 그날이 와야 평화롭고 번영하는 레일이 앞당겨지게 된다것이 오늘날 온 겨레의 목소리이고 열망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의 미래에 나아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8천만의 인구가 막대한 군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 민족의 강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 바로 이것이 통일된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민족의 밝은 미래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한 녀성민주인사를 참된 애국의 길로 (3)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던 류영준 선생에게 은혜로운 태양의 빛이 비쳐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선생에게 평양에서 열리는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도록 초대장을 보내주시었다.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환희와 함께 조국의 통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력사적인 회의에 참가하게 된다는 승연한 감정에 휩싸여 선생은 초대장을 받아안자마자 남만저 부형길에 올랐다. 평양에 도착한 선생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환대와 극진한 사랑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이기에서 자기를 력사적인 회의의 주석단에 앉도록 배려해주시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남조선선생들의 의로운 애국투쟁을 높이 평가하시고, 미래와 리승만도당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치하해주시었다. 내 길은 그 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남조선민주녀성동맹에 당면하게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류영준위원장을 비롯한 남조선민주녀성동맹의 일꾼들

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일을 잘해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회의가 끝난 후 남조선에 나간 류영준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민족분열의 고착화로 이어지는 망국적인 단독선생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선생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장소들마다서 북조선의 현실을 알려주면서 전민족이 따르고 받아들여야 할분은 김일성장군님뿐이시라고 격정에 겨워 연설하곤 하였다.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탄압책동이 더욱더 우심해질 때에도 그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있는 건설적응용인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희망과 신심을 안겨 주었다.

만나보았지만 우리 수령님 같은분은 이 세상 천하에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다. 수령님께서 지리리 고생만 하던 나에게 믿음과 사랑과 영예를 안겨주시고 그 은혜를 나는 이제 죽어 백발이 진도 되어도 잊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잊지 말고 수령님께 꼭 충성을 다하거라.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렬사들속에서 류영준선생은 오늘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있다. 공화국은 진정한 어머니의 품, 빛나는 삶의 품이라고. 본사기자 강류성

류영준선생에게 들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은 가뭄처럼절했던 전화의 나날과 그후에도 계속되어왔다. 끝없는 그 사랑속에 그는 80고령의 나이에 이르도록 사업하였고 년로보강후에도 이진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여생을 편히 지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오랜 세월 수년에 찬 길을 걸어도 평범한 녀성을 민족앞에 떳떳히 내세워주고 빛나는 삶을 살도록 하여주신 한없이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이었다. 하기에 류영준선생은 1972년 9월 어느날 자기의 한생을 총화하며 조카와 그 아들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여든두살이면 오래 산셈이다. 언여덟살까지는 일제와 미제의 통치아래서 살았고 그후 스톨레해동안을 수령님의 품속에서 살았다. 내 일생에 동양삼국을 넘나들며 이름있는 사람들 만나보고 독립운동자, 박사, 영웅이라고 하는 별의별 사람들과 다



류영준선생의 사진

《지방소멸은 곧 사회붕괴를 의미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소멸》이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청년층유출과 고령화심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들이 자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남조선의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220여개 시, 군, 구·군에 108곳, 3500여개의 읍, 면, 동·가운데 1791곳에 달한다고 한다. 력대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정책으로 지방들의 교육조건과 의료 및 문화환경 등 생활환경이 《수도권》 지역

과 대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것도 그 원인들중의 하나이지만 중요하게는 일자리배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판매액이 높은 1000여개의 기업들중 700여개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것은 지방의 젊은층들로 하여금 《지방소멸》에 나서게 하고있으며 이것은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속에는 새로운 삶을 위해 농촌으로 갔다가 지역갈등과 수입부족으로 하여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청년들도 많다고 한다. 어느 한 농촌마을에는 60여명이 살고있는데 그중

20대 1명, 30대 0명, 40대 2명, 50대 14명, 60대가 8명이고 나머지 40여명은 70대 이상이라고 한다. 더우기 20~30대의 여성들이 한명도 없어 이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린지는 20년이 넘었으며 마을은 점차 자취를 감출 위험에 처해있다고 한다. 2020년 지방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가 8만 7700여명이었으며 그중 92%가 20대였다는 자료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에서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특히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고 한다.

로인들만 남은 농촌에서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태풍과 장마, 악성전염병 등 여러가지 재난이 겹치면서 농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농촌에서의 삶이 주체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대 전환》, 《농정대 전환》을 위해 민중총궐기를 내걸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분열》이 사회의 주요모순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지방의 소멸은 곧 남조선사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남조선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유준



을 위한 것이라는 모략설을 퍼뜨리며 남조선인민들의 열세를 짜내 《대우땀》을 건설한다고 범석 소동을 퍼온 자라나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동족대결로 일생을 보내다가 그것도 부족하지 죽으면 사까지도 동족대결의 《유서》를 남긴 전두환이다. 그러니 명백히 말하건대 역도가 전방고지에 백팔로 남아 《홍수통일》의 그 날을 보겠다고 꿰찢지만 그런 개꿈은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박명성



남조선의 현실

얼마전 일본에서 1895년 10월 조선항중에서 감행된 명성황후살해사건에 직접 가담하였던 당시 일본의교관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었다고 한다. 해당 편지는 당시 명성황후살해사건에 행동대원으로 가담하였던 조선주재 일본령사관 려사보 호리구찌가 만행을 저지른 다음날 쓴것이라고 한다. 편지에서 이자는 《우리가 조선황후를 죽였다》고 자랑하면서 사건경위와 담당하였던 역할, 소감까지 상세히 적었다고 한다. 그 편지는 력사에 《올미사변》으로 기록된 명성황후살해사건이 칠두칠미 일제의 조선침략정책에 따라 계획되고 집행된 야만적인 범죄사건이었음을 다시금 실증한 증거물이다. 19세기말 청일전쟁의 결과 조선에 대한 독점적배권을 확립할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가지게 된 일제에게 있어서 중요한 방패물로 지목된 인물은 다름아닌 명성황후였다. 강압과 회유의 방법으로도 명성황후를 틀어쥐지 못하게 되자 일제는 그를 아예 제거할 흉계를 꾸미었다. 그것이 조선주재 공사 미우라와 그 패당에 의한 명성황후살해음모였다. 당시 미우라가 《명성황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조선)에서의 우리의 세력은 몇달도 못가서 깨끗이 사라질것》이라고 꿰찢은 일본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또 절실한 문제로 여기었는가를 하는것을 잘 알 수 있다.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사르도록 직접 지휘, 지시한 미우라가 히로시마폭탄에 일시 《감금》되었다가 무

죄석방되어 도쿄에 도착하였을 때 왜왕이 측근을 보내어 명성황후살해의 이튼바 《공로》를 치하하고 위로까지 한 사실도 있었지만 이번엔 폭로된 편지는 《올미사변》이 일본당국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국가테러행위였다는것을 다시금 여실히 실증해주었다. 이처럼 일제가 력사적으로 저지른 죄악은 절대로 감추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까지도 죄 많은 과거에 대하여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을뿐 아니라 그러한 의함조차 보이지 않고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을 더욱 키지게 하고있다. 최근에 남조선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린 수십장의 반일선화들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사회적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고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불라는 일본렬도나 일장기를 짓밟는 어린이들을 형상한 학생들의 그림을 통하여 남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이 동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가 패망한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은 식을줄모르고 더욱 고조되고있다. 다름아닌 일본이 그렇게 만드려고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날의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두려 한다면 력사의 심판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만 더욱 굳세게 해줄뿐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단평

자옥에 가서도 저주를 편지 못할 극악한 대결광

지난 23일 남조선의 이전 독재자인 전두환이 죽었다고 한다. 그는 남조선에서 12.12속군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하고 온 광주시를 피바다에 잠그었던 극악무도한 살인마이다. 두손을 인민들의 피로 물들이고 권력을 강탈하고 민중을 교살한 도저히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는 저세상에 가는 날까지 남조선인민들에게 사죄를 표명하지 않았다. 인두집을 쓴 살인마, 독재광, 칠면파한... 그러나 저승길에 올라서도 남조선인민의 저주와 비난을 받은 역도이다. 더욱 역겨운것은 그가 저세상으로 가면서 남겼다 고 하는 《유서》의 내용이다. 역도는 이런 날이 올것에 대비하여 이미전에 쓴 자서에 《유서》라는것을 남겼는데 그 내용인즉 《북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감격을 맞이하는 일》이 자기

만평

《꼭 두 각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라는 윤석열에게 새 오명이 생겨났다. 《남자 박근혜》, 《도리도리》, 《적벽》, 《본부장》부정부패 등 정계에 나서자마자 회한 오명으로 이름떨친것도 모자라는 모양이다. 일인즉 얼마전에 있는 TV토론회에서 연단에 오른 윤석열이 2분동안이나 말을 못하고 어색한 표정을 지은 채 두리번거리기만 했다는 것이다. 연설문이 나오게 된 《프롬프트》(자막출출기)가 동작하지 않았기때문이라든지.

《남자 박근혜》

는 사람이 옳은가? 자기의 《정책전망》을 발표하겠다는 사람이 연설문을 꼭 보아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시청자들의 머리에 떠오른것이 바로 박근혜였다고 한다. 심복들이 써준 연설문이 없으면 단마디말밖에 못하던, 《수첩공주》, 《메모공주》, 《어버버》라는 오명으로 유명했던 박근혜와 흡사하지 않은가. 박근혜가 무당이나네 최순실의 주술에 놀아났처럼 손

못하던 박근혜처럼 《프롬프트》에 의거해서만 토론하려는것도... 아마 그날의 연설문도 어느 누가 써준것이 분명할것이다. 그래도 박근혜는 입이라도 벌렸는데 윤석열은 또 실언, 망언이 튀어나올가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한동안 입을 벌 수도 못했으니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는가. 그날의 2분은 윤석열이라는 사이비정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세계앞에서 망신스럽게 드러낸 2분이었다. 유치원생만도 못한 윤석열을 남조선인민은 평가했다. 《남자 박근혜》, 본사기자 김정혁

국제적인 조소거리가 되고있는 남조선정국

다음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남조선정계의 개싸움에 대한 세계의 여러 전문가, 언론들이 이모저모로 평하고있다. 세계언론들은 《대선》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남조선여야당사이의 아귀다툼을 《오징어게임》에 비유하여 조소하였다고 한다. 《오징어게임》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남조선 TV극인데 외신들은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승자독식구조가 현재와 같은 선거판을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하였다고 한다. 특히 여야당의 후보들이 각종 부정부패의혹들로 민심의 랭대를 받고있으며 그들의 공약은 회의심만 불리일으키고있다고 평하였다. 남조선의 여야당이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오그랑수를 쓰고있지만 그에 대한 반응도 싸늘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끝없는 비난전과 후보들의 부정부패의혹으로 선거판이 진흙탕속에 빠져들고있다고 조소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매일처럼 연출되는 정치막간극

최근 남조선인론들이 《국민의힘》이 여러가지 문제로 하여 불안에 쌓여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고 한다. 우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윤석열과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사이의 암투문제이다. 둘 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자기식대로 하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따지고 보면 권력을 서로 나누지 않으려는 허수아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은 김종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그의 꼭두각시로 전락될수밖에 없다는 위기로 하여, 또 지지표를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으려는 욕망으로 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선거대책위원회의 요직에 어중이떠중이들을 올려앉히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김종인이 결코 만능해결사는 아니다. 김종인의 독판치가 후배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힘》내부의 불만도 작용했다는 설도 있다. 정치뽕배기를 휘어잡고 남조선정치판을 마음대로 주물러보려던 김종인은 일이 이렇게 되자 윤석열이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가는것을 거부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남조선의 주요 언론들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윤석열과 김종인사이의 불화가 심화되는데 대해 보도하면서 서로가 결별할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권》탈환을 위한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조직도 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있다고 평하였다. 한편 《대선》후보선출경쟁에서 윤석열에게 밀려난 홍준표가 당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정치활동에 나서고있는 것도 《국민의힘》의 골치거리라고 한다. 홍준표는 당내 경선결과에 《승복》한다고 하고서도 이후 력일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벌여놓고 윤석열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범죄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있는 것만큼 그가 《대통령》이

사생결단의 험악한 싸움판

《이기면 영웅, 지면 역적》, 이 말은 동서고금의 력사에 기록된 수많은 권력쟁탈전들을 함축한 격언일것이다. 지금 여야당모두가 《정치보복》의 칼을 버르는 남조선정국도 《영웅》으로 살아남느냐, 《역적》이 되어 죽느냐의 험악한 싸움판으로 변하고있다. 우선 여야당의 《대선》후보들이 서로 집권하면 상대방을 감옥에 처넣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후보인 리재명은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과 그 일가의 부정부패의혹을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부정부패로 규정하고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도적떼무리인 《국민의힘》을 일망타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윤석열은 또 그대로 리재명이 대장동맹발태의혹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그와 《신적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을 강력히 비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기득권청산시민연대》가 얼마전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여야정치권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발언자들은 지금 여야모두가 친일, 친미, 반통일, 반민중적행태로 일관하고있으며 어떠한 사안에서도 국민은 안중에 없고 집권야육에만 사로잡혀 누가 더 밥그릇을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정쟁에만 몰두하고있다고 까맣혔다. 또한 그동안 국민은 인내심있게 기다려왔지만 기성정치권은 정신차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이상 《기

득권》과 정치권에 구걸하지 않을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계속하여 이번 《대선》은 《대권》육심으로 정쟁만 일삼는 《기득권》세력 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싸움이며 국민이 나서서 지금의 정치판을 갈아엎고 새 정치를 열어야 한다고 서 《기득권》청산투쟁을 선포하고 집중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민생외면 밥그릇싸움 기득권정치 갈아엎자》, 《친미친일 굴종외교 기득권정치 청산하자》,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으로 새 정치 창조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본사기자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단군과 동명왕의 넋이 깃든 송령전

기자는 사회과학원의 리일심연구사와 함께 송령전을 찾아 취재길을 이어갔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평양의 거리를 걷는 기분이 더없이 좋았다.

이속하여 기자는 평양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장대제언덕에 도착하였다. 송령전은 장대제언덕에 자리잡고있는 평양학생소년궁전 옆에 서있었다.

송령전은 본래 본정과 동쪽행랑 3칸, 서쪽행랑 2칸, 대문 3칸과 동서좌우에 달린 좁은 문각 1칸씩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송령전에서는 짝수 즉 4칸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단군과 동명왕을 함께 제사하게 되는 건물의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단군제단은 서쪽 2칸에, 동명왕제단은 동쪽 2칸에 동등하게 갈라놓은에서 생긴것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청자불고기모양주전자

이 주전자는 형상수법이 독특하고 형태 또한 특이하며 어두운 담록색계열의 회청색유약이 고르게 입혀져 있어 자기의 품위를 한결 돋보이게 한다.

청자불고기모양주전자는 물고기를 형상하여 만든 고려시기의 푸른자기주전자이다. 이 주전자는 높이가 24.3cm, 직경이 13.5cm이며 물고기모양

역사일화 췌기에 대한 생각을 하던중에

조선봉건왕조시기 재능있는 과학자, 발명가, 출판인쇄기술자인 리천(1376~1451년)이 세종왕의 령을 받고 새 활자인 《경자자》를 발명하였을 때였다.

리천에게는 발방아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니 어렸을 때 외가에서 보았던 물레방아생각이 났다.

간 리천은 《췌기, 췌기다!》하며 불쑥 일어났다. 조판할 때 황밀을 쓰지 않고 활자를 세운 다음 그 사이에 췌기지를 하여 활자들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면 더 많은 책을 찍을수 있을것같았다.

사화

보쌈김치 (2)

그림 김윤일

《오냐, 맛이 잘 들었구나. 작년것보다 낫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는 입안에 든 김치를 몇번 씹어보더니 《배추도 만만하고 류다른 향기에 가슴속이 다 시원해지는구나!》 하고 칭찬하였다.

그후부터 고분이가 담근 김치는 모양도 류다르고 맛도 류다르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앓는 사람이 입맛 잃은 사람이 생기면 고분이네 보쌈김치덕을 보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이었다. 반반하게 차려입은 한 사나이가 고분이를 찾아왔다. 고분이의 속마음을 넘겨짚은듯 그 사람은 비좁은 행랑이라도 한칸 마련해줄터이니 어머니를 모시고가서 봉양하라고 하였다.



본사기자

고 길게 누운 통수산밀 팔짜기는 물이 맑고 고옥한데다가 수렴이 울창하여 피서지로, 유희터로 이름난 곳이다. 팔짜기어귀에서부터 좌우에 줄을 지어 떠엮이던 들어앉은 청석기와대문과 초가집들은 저마다 대문간에 붉은 등초롱을 내다걸고 술과 음식을 파는 집들이었다.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작성도 전경연

공화국의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프로그램작성도 전경연 《개척자-2021》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탁구명수 김송이 김송이선수는 2016년에 있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탁구 여자단식경기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고 파문을 일으켰다.

민기있는 체육도서,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

공화국에서 체육도서들과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이 새로 출판행되어 많은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모으며 애독되고있다.

겨울철에 건강을 유지하려면

겨울에는 피부가 쉰어지고 땀과 피질이 좁아져 피순환과 물질대사기능에 장애를 준다. 호흡기계통과 심장혈관계통 등 여러 계통의 기능도 낮아진다.

물을 끓였다고 보도하였다. 그의 경기과정은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국제탁구련맹은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의 김송이는 이번 올림픽 탁구 여자단식에 나타난 제일가는 (검은말)이였다.

속담과 뜻

◆ 한번 보면 조면이요 두 번 보면 구면이다. 불인성이 아주 좋아서 사람을 잘 사귀는것을 이르는 말.

속담에 틀린 말이다.

사람이 매우 싱거운것을 놓고 이르는 말. 아무런 재미도 없음을 이르는 말.

속담과 뜻

◆ 노숙이 방지죽을 매우 심하게 노숙을 부리는 모양을 비웃어 이르는 말.

속담과 뜻

◆ 고추장단지가 열들이라도 서방님비위를 못 맞춘다. 성미가 몹시 까다로워서 비위를 맞추기 매우 어려운 사람을 두고 이르던 말.